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1958_김균(金鎭) 지음/김동주(金東柱) 씀/김용기(金龍基) 새김_183.0×78.0×56.0cm



무성서원의 묘정비로 건립 내역, 배향자의 학덕, 서원의 의미, 명문(銘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58년에 김균(金鎭)이 짓고, 김동주(金東柱)가 쓰고 김용기(金龍基)가 새겼다.

武城書院廟庭碑

碑所以識日影也必樹之三分庭之一者古屋制然爾況院宇於以繫牲而圓揖而告充膺且被功實於其上而使讀者知有所敬也緬惟我武城書院享右以文昌侯崔先生致遠先生羅產也幼而北學於中國非直東方學者未能或之先也而華聞鳴天下藉甚沒而躋聖廡者降自勝國祀典極隆無容贅舌其在錦還也見國家危亡兆矣是以恥道不行不久於朝低徊吏隱而及眞聖例武后亦午橋盧姨所不欲仕子者矧伊挺然人豪乎遂遐翔如鳳縹浮游若蟬蛻家伽耶而終身其清風逸韻可以廉立千古儒頑或謂之羽化者誕妄無根古人已以葬在鴻山證之矣蓋其平日緒餘不一槩見乎邦國而施之下邑者恢恢乎游刃刀刃有餘地湖之太山亦一子游所弦歌而與士元枳棘視耒陽者相去不啻絕遠所以桐鄉祠不風雨磨泐而巍然若靈光我中廟盛際靈川申先生潛游宦于茲設五學堂造士以十訓持身以

三事于文昌有光鄉人立生祠而敬之用石慶相齊故事也自鷄林黃葉而蒼葉中興上下七百年間行不由徑不至偃室如滅明者鄉不乏人而若不憂軒丁先生克仁在國朝名賢庚降最先斥佛於莊憲王廟開正路之榛蕪東民以藍田約使鄉俗丕變以正言致仕不聞達聚鄉子弟教誨不倦訥菴宋先生世琳不差汀君不忘誠諫楮以禦燕山之解衣及中廟靖國上封章而斥異端陳民瘼申修學規訓迪蒙士默齋鄭先生彥忠躬行孝弟潛心義理而妙透象數之奧世稱後堯夫誠齋金先生若默學正趨向治本清白興學校而使士知方題燭淚而視民如傷繫我及齋先子濯眞實沖澹勤學善誘不染於凶賊募義於虜亂鳴川先生學者稱也若是者固皆豪傑之士而無愧爲聖人之徒也審矣○肅廟改紀初宣額致佑高宗廟服後存祀別單是列聖崇德象賢之深者也目今視舊德如運日棄名教若弁髦之日猶幸柄國者不寶金玉而惟賢惟古昔是寶歲有以廟葺而增新之儒流之從以銜感而圖此庭實綢繆於累百祀靡違之餘者長弟林林焉非諸先生之風可百世下聞者起欽而能然乎哉吾道之日復迎細鳥翺於四尺螭首者誠六六年黑夜罷析後一大曙光而能使人肝腸煖矣得門而讀是文乎禮樂遺化之地者於夫子莞爾之笑割雞之戲恍然如復有聞焉而尚識其爲君子愛人小人易使者皆本於學道之化也云銘曰

惟文昌侯挺生鯀域志有雋異妙齡學北文章學術莫先中國逮夫畫錦銅墨還甘巖茲太山割雞美譚黃裳誤築青山埋薜蘿川作宰異代同符鄉建五學造士孔模去思當日生祠亟且允矣不憂首膺儒運布衣聞佛韓表同謁鄉設欽約藍田風聞訥菴誠諫要悟昏庸異端民瘼改玉陳忠白鹿有跋青衿發蒙默齋孝友儘是惇悌早廢公車停身理義玩心高明亮夫後世誠齋剛學審趨向莅官永葵錫衣自上金玉君子欽之這樣鳴川家學趾美月峯嘉怒鮮形氣象春風遇事坦夷水哉洵洵念我武城七賢盼蜚錫扁永祀聖恩沆瀣庭樹牲石百世炳娘

時丙子恩額後二百六十二年戊戌十月上浣金陵後學金替謹述

義城後學金東柱謹書後學金陵金龍基敬篆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빛들은 해그림자[日影]를 알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뜰의 삼분의 일이 되는 지점에 세우니 옛집의 제도가 그러할 뿐이다. 더구나 원우(院宇)는 회생을 매놓고 빙 둘러 읊하고 희생(犧牲)의 충돈(充順)을 고하며, 또 그 위에 공적을 써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할 바를 알게 한다. 우리 무성서원은 사당의 오른쪽에 문창후(文昌侯) 최치원 선생을 배향한 곳이다. 선생은 신라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동방의 학자들 중에 누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에 떨친 화려한 명성이 대단하였기에 죽어서도 성무(聖廟)에 배향된 것이 고귀 때부터였으니 사전(祀典)이 매우 융숭했던 것은 덧붙일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가 망해가는 조짐을 보고, 이 때문에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여 조정에 있는 오래 있지 않았고 낮은 관직이나 은자(隱者)로 배회하였다.

진성여왕(眞聖女王)이 후후(武后)의 예처럼 왕위에서 물러나니 그가 또 한 오교(午橋)에 사는 노씨 이모(盧姨) 말처럼 더 이상 부끄럽게 벼슬하고자 하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뛰어난 호걸인가!

마침내 봉황새가 훨훨 날듯이 멀리 날고 매미가 허물을 벗듯 떠돌다가 가야산에서 생을 마쳤다. 그 맑은 풍류와 빼어난 시는 천고토록 나약한 이를 서게 하고 완악한 이를 청렴하게 할 만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화(羽化)했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하여 근거 없는 말이니 옛 사람이 이미 묘소가 홍산(鴻山)에 있음을 변증하였다. 그 평소의 나머지는 나라 차원에서는 한 가지도 대락을 볼 수 없지만 지방 고을에 베풀 것은 넓고 넓어서 그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데 여유가 있었다. 호남의 태산(太山)도 한 명의 자유(子游)가 현가(弦歌)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한 곳으로, 사원(士元)이 작은 지방관인 뇌양현(未陽縣)의 현령을 맡았던 것과 더불어 서로 거리가 아주 멀 뿐만이 아니니, 동향(桐鄉)의 사당으로서 비바람에 마멸되지 않은 채 우뚝하기가 영광전(靈光殿)과 같다. 우리 중종(中宗)의 성대한 시대에 영천(靈川) 신잠(申潛) 선생이 이 고을에 벼슬하여 오학당(五學堂)을 세워 선비들이 나아오도록 하였으며, 주자심훈(朱子心訓)으로 몸가짐을 하고 삼사(三事)로 문창후를 빛나게 하여 고을 사람들이 생사당을 세워 공경하였으니 석경(石慶)이 제(齊)나라의 승상이었을 때의 고사를 쓴 것이다. 계림(鷄林)의 잎이 누렇다가 푸른 잎이 중흥한 이래 전후 700년간 지름길을 경유하지 않고 언(僊)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는 담대멸명(澹臺滅明) 같은 자가 고을에 없지 않지만,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선생은 국조(國朝)의 명현(名賢)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장헌왕(莊憲王 세종(世宗)의 시호)에게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려 황폐해진 바른 길을 열고 남전향약(藍田鄉約)으로 백성들을 단속하여 고을 풍속을 크게 변화 시켰다. 정언(正言) 벼슬로 치사(致仕)하고 영달을 구하지 않았으며,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놀암(訥菴) 송세림(宋世琳) 선생은 더러운 임금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정여란 간언을 잊지 않았으며, 방패로 연산군(燕山君)의 해의(解衣)를 방어하였다. 중종(中宗)이 나라를 안정시키자 봉장(封章)을 올려 이단을 배척하고 백성들의 병통을 진달하였으며, 학규(學規)를 거듭 고쳐 몽매한 선비들을 가르쳤다. 목재(默齋) 정언중(鄭彦忠) 선생은 몸소 효제(孝弟)를 실천하고 의리(義理)에 깊이 몰두하여 묘하게 상수(象數)의 오묘한 이치를 꿰뚫어 세상에서 훗날의 요부(堯夫)라고 일컬어졌다. 성재(誠齋) 김약묵(金若默) 선생은 학문은 취향을 바르게 하고 다스림은 청백(淸白)을 근본으로 하여 학교를 일으켜 선비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였다. 축루라는 시를 지어 다친 사람을 보듯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 우리 금재(金齋)의 선친인 김관(金灌)은 진실하고 충담하며 학문에 성실하고 남을 잘 인도하였으며, 홍적에 몰리지 않아 정묘호란 때에 의병을 모집하였다. 명천(鳴川) 선생은 학자들이 호칭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들은 진실로 모두 호걸자이시고 성인(聖人)의 무리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음이 분명하니, 숙묘(肅廟)께서 정치를 개혁한 초기에 사액(賜額)을

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고종(高宗)이 왕위를 이은 뒤에 제사를 존속하라는 별단(別單)을 내렸으니, 이는 열성조(列聖朝)의 덕 있는 이를 높이고 여절을 닮은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깊은 은혜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옛 덕을 보기를 마치 집새의 독을 섞은 술처럼 보고, 명교(名敎)를 버리기를 마치 쓸모없는 변모(弁髦)처럼 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금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오직 현인과 옛날을 보배로 여겨, 해마다 이어서 수리함으로써 더욱 새롭게 하고 유자(儒者)들이 이를 따라 감사함을 품고서 수백 년 동안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에 정실(庭實)을 진열하고 성대한 의식을 도모하는 것이 앞뒤로 많으니, 어찌 여러 선생의 유품이 백세가 지난 뒤에 듣는 자로 하여금 공경을 일으켜 그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유학의 도가 날로 다시 미약해지는 시기에 4척의 이수(鰲首)에 새기는 것은 진실로 일제 강점 36년의 캄캄한 밤을 깨뜨린 뒤 큰 서광이 비취 사람의 뱃속을 따뜻하게 한 것이다. 문에 들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예악의 교화가 남은 이곳이 부자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라고 했던 농담이 황홀하게 다시 들리는 것 같다.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은 부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이 모두 도를 배운 군자의 교화에 근본함을 알 것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문창후께서는 우리나라에 태어나 뜻이 보통 사람과 매우 달라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문장과 학술이 중국에서조차 능가하는 이가 없었네. 금의환향하여 지방 수령이 되는 것도 달게 여겼건만, 돌아보건대 이 태산에 뛰어난 능력으로 작은 고을 수령을 지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고 황색 치마가 크게 길하다는 것은 점이 잘못되어 청산에 잠(簫)을 문었네.

영천(靈川) 신잠(申潛)이 수령이 된 것은 시대는 달라도 서로 부합하여 고을에 5학당을 지어 선비를 나야와 공자를 존모하게 하여 당시에 공덕비가 세워졌고, 생사당을 세웠으니 빠르도다.

진실하도다. 불우현은 맨 먼저 유학의 운에 응하여 포의(布衣)로서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한유(韓愈)와 동운(同龢)이고, 향약을 시행하고 향음주례를 거행하니 남전(藍田)의 유풍을 들었던 것이라네.

놀암의 정성스러운 간언은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이단을 몰리치며 백성의 병폐를 구제하고자 하였고, 개옥(改玉)하자 충성을 전달하였고 향약의 발문(跋文)을 써서 유생들을 계발하였네.

목재는 효성스럽고 우애하여 모두 화락하였고 일찍 과거 공부를 그만두어 의리에 몸을 두고 고명(高明)한 데에 마음을 사색하였으니 후세의 요부(堯夫)로다.

성재는 곧고 강하며 박학(博學)과 심론(審問)을 지향하였고, 관직에 임해서는 빙벽(氷壁)과 같아 임금께 옷을 하사받았으며, 금옥군자(金玉君子)라 일컬었으니 흠양함이 이와 같았네.

명천은 가학(家學)이 있어 월봉(月峯)의 아름다움을 잘 이었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드러내 지으니 기상은 봄바람과 같았고, 매사에 평탄하여 물처럼 넘실넘실 아름다웠도다.

생각건대 우리 무성의 7현의 영령이 할행(卹喪)하여 편액을 하사받고 길이 제사하니 성은(聖恩)이 넓고 커서

뜰에 비석을 세우니 백세토록 찬란하게 빛나리라.

때는 병자년(丙子, 1958) 사액을 받은 뒤 262년 무술 10월 상완(上浣)에 금릉(金陵) 후학(後學) 김균(金鎭)이 삼가 짓다.

의성(義城) 후학 김동주(金東柱)가 삼가 쓰다.

후학 금릉 김용기(金龍基)가 경건하게 새기다.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